

저자, 정태영은 누구인가

1931년생의 노인이다. 해방 후 서울대 문리대를 다녔는데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은 많고 친일과는 득세하는 현실을 보며 “책상머리에 앉아서 안일하게 글이나 쓰게 생겼다.”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 한번 모가지 걸고 해봐이지.” 하는 각오로, 진보당 강령과 정책 문헌을 찾아 읽고 스물여섯 살의 겨울 조봉암을 만났다. 막상 만났지만 조봉암은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걸려오는 전화도 많아 제대로 이야기 나누지 못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진보당 강령과 정책, 대통령 선거 결과 등에 대해 준비해간 메모를 주었고, 본격적으로 당 조직에 가담했다. 그리고는 바로 동양통신 외신부 기자 시험에 붙어 기자 생활을 했다. 당에서는 그를 보호하려고 ‘동화’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게 했고 청년 조직을 확대하는 일을 맡겼다. 진보당사건 때 “북한에서 교육받은 당 이론가”로 몰려 조봉암과 나란히 재판을 받았다.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감옥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조봉암을 대면했을 때 “나를 구출한다는 명목으로 타협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다. 4. 19 이후에는 사회대중당 준비위 조직부 차장을 했고 통일사회당에도 가담하고 3선개헌반대특위에서도 역할을 하고, 유신 체제를 전후해 신민당 노농국장을 맡았다. 그렇게 살았다. 그러다보니 가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했다.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한편, 후대를 위해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경험을 정리분석기록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쉰이홉 살에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에 입학해 석사를 했고 이어 건국대에서 ‘한국 사회민주주의 정당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 남은 삶에 대해 그가 갖고 있는 조바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아직도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하는 그는, 조봉암과 진보당의 명예 회복에 남은 생애를 걸고 있다. 조봉암의 억울한 죽음과 불명예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무슨 민주주의냐고 항변한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났다. 민주화가 된지도 20년이 지났다. 여운형을 포함해 진보 계열의 정치 지도자 대부분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식 문건에서 여전히 조봉암은 간첩죄를 저질러 사형된 범죄자로 남아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필자는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던 조봉암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와 진보당이 추구했던 정치적 실험이 온전히 평가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불구 상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권위주의와 냉전 반공주의의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과거의 역사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는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이 책은 민주화되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 항의의 의미를 갖는다.”

왜 이 책을 썼는가

이 책은 한국 현대사에서 최초로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던 조봉암과 진보당의 역사적 실험과 좌절에 대한 기록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1945년 이후 정치사에서 이승만의 자유당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한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야당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한으로 대표되는 공산 세력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범혁신계가 어떤 생각과 비전을 발전시키고자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핵심은 민주주의, 사회주의, 평화통일이다. 1955년 12월 22일, “우리는 공산 독재는 물론 자본가와 부패분자의 독재도 배격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책임 있는 혁신 정치를 실시, 생산 분배의 합리적 통제로 민족 자본을 육성, 민주 우방과 제휴하여 민주 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조국 통일의 실현, 교육 체제의 혁신에 의한 국가보장제 수립을 지향한다.”라는 강령 초안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들이 견지했던 정치적 지향은 매우 선명했다. 저자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가난한 민중의 삶을 보살피고자 하는 정치 세력의 좌표가 되어야 한다

고 믿는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새로운 조봉암과 진보당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저자 정태영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이다. 평생 진보 정당에 대한 신조를 굽히지 않고 살았고 지금도 민주노동당 행사장 청중석에는 늘 그가 앉아 있다. 조봉암이 최후의 사형 선고를 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이후 언젠가는 조봉암과 진보당의 실험과 좌절에 대해 말해야겠다고 다짐해왔다. 조봉암과 진보당은 그래서 그의 삶의 일부처럼 언제나 붙어왔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진보당의 실험에 대해 미화하지 않는다. 그는 진보당을 포함해 제1세대 진보정당 운동은 실패했다고 말한다. 그것도 단순히 이승만 정권의 탄압 때문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조직 내부의 문제가 더 중요했다는 판단이다.

“이들(1세대 진보정당 운동가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좌파 사회 민주주의에서 우파 사회 민주주의 내지 민주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잡다했으며 작풍이 서로 달랐다. 대다수가 정치 경험이 비교적 적은 ‘지사형’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또한 작풍에 있어 남과의 타협이나 조화에 익숙하지 못한 완고한 편견증 활동가들이었다. 동일한 조직에서 활동해본 일이 없던 이들은 7·29선거에 참여한 뒤 쉽게 분해되어 자멸했다. 오늘의 민주노동당은 이들의 실패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진보운동은 정권의 탄압이나 냉전과 같이 외적 요인들에 의해 좌절되었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실의 모든 것은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 더 중요한 측면은 진보운동이 현실에 기초를 튼튼히 둔 이념적 좌표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조직 내 건전한 작풍을 만드는 데 실패하고, 당내 정파들의 조급한 헤게모니 투쟁 때문에 분열하고, 결과적으로 대중으로부터 유리되었다는 사실이다. 진보당이 그러했고 4·19혁명 직후 혁신 세력이 그러했다. 조직의 핵을 지도 세력과 격리시키고 또 대중과 격리시키는 작업이 거듭 되면서 극소수 세력을 제외하고는 흩어지고 또 흩어졌다. 흩어질 때마다 결집력은 더 취약해졌다. 진보당이 물리적인 힘으로 해체되고 그 핵인 조봉암이 법의 이름으로 처형되었어도 저항 하나 없었던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오늘날 한국 진보정당운동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들이 진보당의 실패를 넘어설 수 있을까를 묻는다.

“오늘의 진보 세력은 훨씬 좋은 조건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은 한국현대사 나아가 진보 정당의 역사에 대한 변변한 역사 교리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내일을 위해 투쟁한다 하지만 어제 없는 내일이 공허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 당 조직의 리더십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해갈 수 없는 정당이 어떤 문제에 직면할 것인가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저자가 원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제대로 평가하고 거울삼기를 권한다. “어떤 독단이나 관념성이 개재할 경우 과탄을 가져오기 쉽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역사와 현실을 제대로 돌아볼 것을 강조한다. “전 세대가 저지른 과오를 크게 교훈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애초 이 책은 1991년 『조봉암과 진보당』이라는 제목으로 한길사에서 발간되었다. 책의 초판본이 모두 소진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끝으로 이 책은 절판되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수정하여 재판본을 발행해야겠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이를 지키는 데 15년이 흐른 것이다. 책을 새롭게 발간하면서, 역사 자료에 대한 재확인 등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고, 대중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문장을 많이 수정했다.

<이 책의 특징>

1. 진보당 참여자로서의 기록과 평가

저자는 알려졌던시피 젊은 시절 조봉암과 함께 진보당 활동을 하며 사회주의를 꿈꿨고, 서울특별시당 상무위원으로 활동하며 진보당 청년 조직을 위해 힘썼으며, 진보당 해체 뒤에는 조봉암의 복권과 진보당 연구를 위해 노력했다. 그런 만큼 이 책은 당시의 현실과 맥락에 밀접히 닿아 있는 책이요, 조봉암의 삶과 투쟁의 기록이자 한국 진보정당의 역사이면서 또한 평생 사회주의의 꿈을 키워온 저자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민주사회주의자로서의 조봉암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진보당의 성격을 당시의 사료와 경험을 통해 분석평가함으로써 여전히 역사의 과오로 남아 있는 조봉암과 진보당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2. 당시 역사의 맥락에 충실한 서술

이 책은 조봉암의 사상 형성과 변화를 당시 역사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다.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던 일,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받아들인 사회주의, 해방 전의 조선공산당 활동과 해방 후 공산당과의 결별, 이어지는 해방 정국에서 조봉암의 중간노선이 합리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필요했던 중간노선 조직에 대해 충분히 서술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서들이 조명하지 않았던 점이다. 특히 친마·친소 극좌극우의 양극화를 달리는 해방 정국의 정황에서 민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노선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조봉암의 사상은 변화하고 성숙해갔는데, 이는 조봉암의 노선을 ‘전향’이나 ‘변절’로만 보던 것과는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해방 정국의 복잡한 상황에서 진정 한국 사회에 필요했던 현실 대안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3. 조봉암의 해방 전과 해방 후의 달라진 노선은 ‘전향’인가?

조봉암은 해방 공간에서 박헌영의 공산당과 결별하고 제3전선을 결성해 중간노선의 대중정당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다. 정말 그는 ‘변절’, 혹은 ‘전향’한 것일까? 조봉암도 이를 부정했고, 저자의 대답 역시 ‘아니다’이다. 저자는 변절이란 “독립운동의 대의를 외세에게 팔아먹고 자기 일신의 안위만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조봉암에게는 이 말이 옳지 않음을 지적한다.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해방 이후 조봉암은 변절이 아니라 공산주의운동을 분명히 지양하는 족적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폭압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공산주의운동의 선봉에 나섰던 조봉암이 해방 후 조선공산당의 재건 작업에 적극 나서지 않다가, 1946년 반탁의 기세가 거세질 무렵 비미비소 민족 노선을 주장한 것은 ‘볼셰비즘을 지양한 민족적 사회주의와 민족 주체 노선의 지향’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그의 민족 노선은 일종의 실사구시적 태도이자, 민족과 국가에 주어진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민족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한국적 사회주의 노선으로 자신의 공산주의 노선을 지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역사, 그의 삶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당시의 전향은 조선 독립 운동가들의 사기 저하용으로 충분히 이용되었지만, 조봉암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데서 그 전향설을 부인한다.

4. 왜 “민주사회주의자”인가

저자는 일러두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책은 다양한 뜻의 사회주의를 크게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회주의(=볼셰비즘)와 비마르크스-레닌주의적 민주사회주의의 둘로 나누고, 민주사회주의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폭력적·계급 독재적 성격을 지양한 의미의 정통 사회주의라는 입장에 선다.”

위의 민주사회주의 정의는 반소반마계급 편향성을 지양했던 조봉암의 노선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진보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었으며, 또한 이 책은 조봉암을 사회민주주의자 내지는 민주사회주의자로 정의한다. 그럼에도 ‘민주사회주의자’라고 한 것은 현재의 사회민주주의가 서구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성격을 담은 협소한 의미로 다가와 저자가 의도한 정통 사회주의의 입장을 드러내기에는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조봉암을 ‘사회민주주의자’ 내지 ‘민주사회주의자’로 규정하면서 당시의 의미를 반영하고, 현대의 ‘서구 사회민주주의’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민주사회주의자’라고 하였다.

5. 이 책의 구성

연대기 순으로 나누어 1부에서부터 4부까지 이루어져 있다. 1부는 항일운동 시절의 조봉암을, 2부에서는 해방 정국에서 조봉암이 선택한 민족 노선의 흐름을, 3부에서는 의정 활동과 대중정당 운동의 전개 양상과 그 좌절을, 4부에서는 진보당사건과 조봉암의 죽음을 담고 있다. 5부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와 더불어 현재 한국 사회 진보당에 대한 평가, 또한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해 본다. 부록에는 조봉암의 삶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조봉암의 글 ‘내가 살아온 길’ ‘나의 정치 백서’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를 실었다.

차례

서문 7

제1부 일제강점기 조봉암의 민족해방 투쟁

사상 형성기의 조봉암

조선공산당과 민족해방운동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조선공산당

일제강점기 조봉암의 삶과 투쟁

제2부 해방 직후 조봉암의 민족 노선

해방 정국의 구조와 특징

해방 직후의 조봉암과 조선공산당

좌우합작운동과 조봉암의 제3전선 결성

분단에 맞선 조봉암의 민족 노선

제3부 대중정당운동의 전개와 좌절

개요 : 정치인 조봉암의 삶과 투쟁

의회정치를 통한 개혁 정책의 실시

대중정당 결성의 시도와 좌절

제4부 진보당과 조봉암의 민주주의 투쟁

개요 : 진보당의 실험과 좌절

민주주의 투쟁과 진보당 창당 전야

진보당의 창당

진보당사건과 조봉암의 죽음

진보당의 이념적·조직적 특성

제5부 결론: 한국 진보주의 정당의 성격과 한계

이념으로서 한국 사회주의의 역사적 위상

진보정당의 역사 1: 진보당까지

진보정당의 역사 2: 진보당 이후

부록 내가 걸어온 길_조봉암

나의 정치 백서_조봉암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_조봉암

진보당 강령

진보당 정책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학계의 평가

나는 조봉암의 적극적 지지자나 이념적 신봉자는 아니지만, 장기적 안목으로는 그의 민족 철학이 옳음을 인정하고 있었지. 무엇보다도, 이승만에 대항하는 노선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의 자기희생적 행위에 경의를 표했지.

— 리영희, 『대화』 중에서

진보당에는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였는데, 전쟁 전의 진보적 민족주의자들 또는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는 새 세대로 이루어졌다.…… 전쟁 후 20세기가 끝나도록 한국에서 그래도 서유럽에서와 같은 정당에 가까운 것이 있다면 진보당 정도가 아니었을까. …… 진보당이 압살되지 않고 계속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었더라면, 한국에서도 정당 정치가 일찍 자리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상) 중에서

1956년 대통령 선거는 ‘분단 이후사’에 있어 한국전쟁과 분단에 의한 한국 사회 이데올로기 지형의 극우 보수화 테제에 대한 가장 가시적인 이탈 현상이다.…… 1956년 선거에서 조봉암의 득표는 한국전쟁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진보적 정향의 표현이었다는 가설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 손호철, 『현대한국정치』 중에서

조봉암은 역사의 국면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일제시대에는 공산주의운동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해방 정국에서는 제3전선의 지도자로서,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는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서, 1950년대에는 이승만과 보수 야당에 대항하는 혁신 정당의 지도자로서 한국 현대사의 굵이굵이마다 그 중심에 등장한다.

— 박태균, 『조봉암 연구』 중에서

자유당 정권은 조봉암 사형에 아무런 사회적 저항이 없는 것에 대해 득의양양해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3·15부정선거’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조봉암 사형에 대한 한국 사회의 침묵은 자유당 정권으로 하여금 한국 사회를 무한대로 앞잡아 보게끔 만든 것이었으니, 자유당 정권만 탓할 일도 아니었다.

—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3』 중에서